

■ 주요 업무 사례 ■

지평지성,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여 5개 대학이 제기한 고시무효확인소송에서 전부 승소

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서울대, 성균관대,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“저작권단체가 수업목적보상금을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저작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고시는 부당하다”며 제기한 고시무효확인소송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.

[관련 기사]

- [법률신문 - 교육기관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수업교재로 사용 때\(2013. 10. 1.\)](#)

[담당 변호사]



최승수 변호사



최정규 변호사